

충남리포트 제127호

ChungNam Report

2014. 09. 18.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목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auiro@mokwon.ac.kr

본 연구는 충남의 분공장(分工場) 경제 실태와 소득 유출 현황을 조사하고, 분공장 경제 탈피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 본사 유치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요 약

- 충남경제는 생산한 만큼 1인당 소득의 향상이 되지 않고, 성장성과가 역외로 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분배가 지역 안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시키는 것이 충남경제의 당면과제.
- 소득 유출 중에 중요한 것은 영업잉여의 유출이며, 충남 지역의 영업 잉여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출됨. 영업잉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유는 충남 주요 제조업 공장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
- 충남의 도내 제조업 분공장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충남 소재 분공장의 대부분은 거의 생산기지 역할만 수행.
- 충남이 분공장 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자립적 본사기능을 확대하는 일.
- 충남은 우수한 인재확보, 생활관련 인프라의 부족 등에서 본사 유치에 불리한 점이 있지만, 거래기업과의 근접성(현대 자동차, 삼성 전자 및 디스플레이 등), 편리한 교통, 저렴한 임대료 및 지가,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부처나 충남도청과의 근접성 등에서 본사 입지에 유리한 점도 있음.
- 충남이 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남이 가진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유치가 가능한 업종과 기업을 선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법인 본사 지방이전을 위한 특별법 (가칭)' 등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도 필요.

CONTENTS

〈요 약〉

1. 왜 경제의 선순환과 분공장 경제탈피가 중요한가?
2. 충남 분공장 경제의 실태
3. 본사 입지 여건
4. 정책 제언

왜 경제의 선순환과 분공장 경제 탈피가 중요한가 ◀

01

- 충남경제는 생산한 만큼 1인당 소득의 향상이 되지 않고, 성장성과가 역외로 유출되는 구조
 - 충남의 2012년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89.1조 원이었으나, 이 중에 42.9%에 해당하는 38.2조 원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이러한 유출 수준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충남의 1인당 GRDP는 전국 2위 수준이나, 주민의 실질생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개인 소득은 전국 14위, 1인당 민간소비는 전국 13위에 불과
-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내 귀속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충남경제의 당면과제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선순환 개념과 모델의 정립, 충남 경제의 소득 유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지난 몇 년간 연구되어 왔음
 - 충청남도에서도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거, 문화, 의료, 교육 등의 복합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상생단지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 소득유출의 주요 요인이 분공장 경제에 의한 영업잉여 유출이기 때문에, 충남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분공장 경제 탈피와 자립적 본사경제 형성이 주요 과제임

[분공장 경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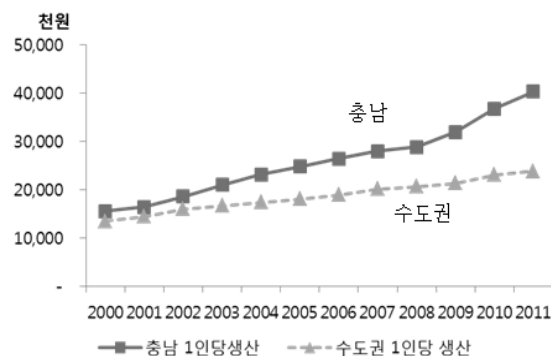
- 분공장(branch plant) : 사업체의 통제권이 모회사에 있는 제조업 지부와 자회사
- 분공장 경제(branch plant economy) : 지역 고용의 상당부분을 지역밖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담당하는 지역경제(Watts, 1981)
- 분공장 경제 논쟁 : 외부자본이 지역경제의 핵심을 이룰 때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들을 둘러싸고 1960~1970년대 주로 캐나다와 영국 등에서 처음 제기된 논쟁으로, 분공장은 안정적 일자리의 부족, R&D활동의 부재, 제한적 후방산업 연계, 지방정부 지원의 전용(rent-seeking), 소득(영업이익)의 역외유출, 분공장의 철수시 해당 지역경제 황폐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내용을 둘러싼 논쟁

1) 충남경제의 소득유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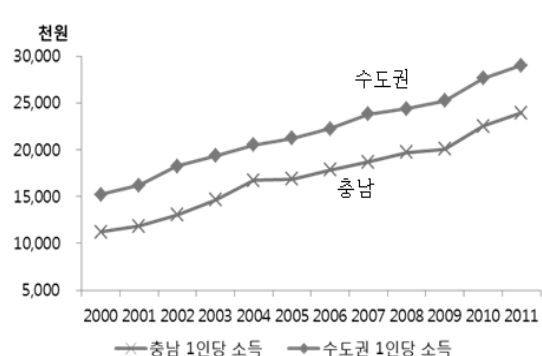
● 생산과 소득의 괴리

- 충남의 경제규모는 2000년의 21조 원에서 2011년에는 50.4조 원으로 약 2.4배 증가했으며, 그 결과 충남의 1인당 생산은 이미 수도권의 1인당 생산 수준을 능가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그러나 1인당 소득수준은 여전히 수도권보다 낮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그림 2〉 참조).
- 이것은 생산된 부가가치가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유출되기 때문이다. 충남의 소득유출 비율(순생산액 중 역외유출규모) 4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2012년 기준)(〈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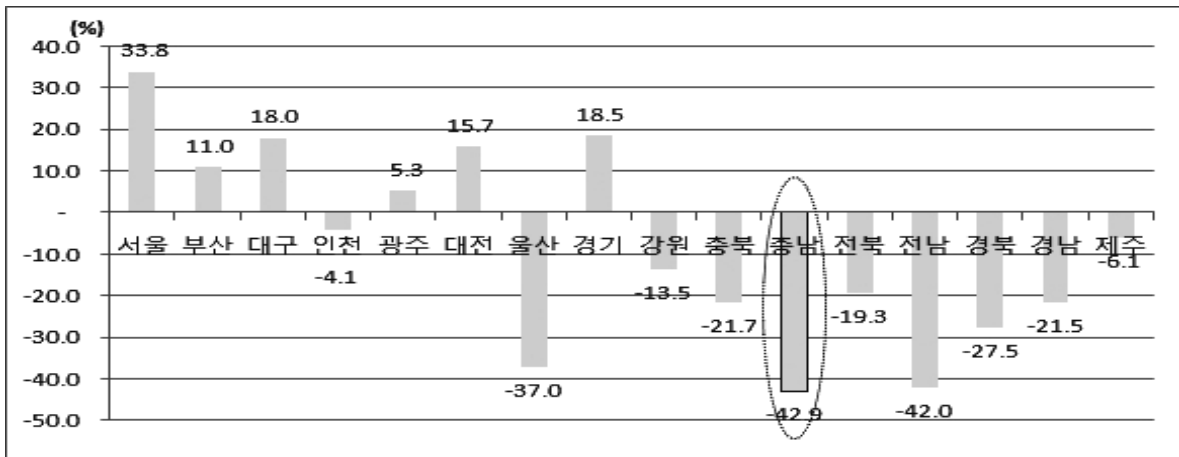
〈그림 1〉 수도권과 충남의 1인당 생산의 격차 추이



〈그림 2〉 수도권과 충남의 1인당 소득의 격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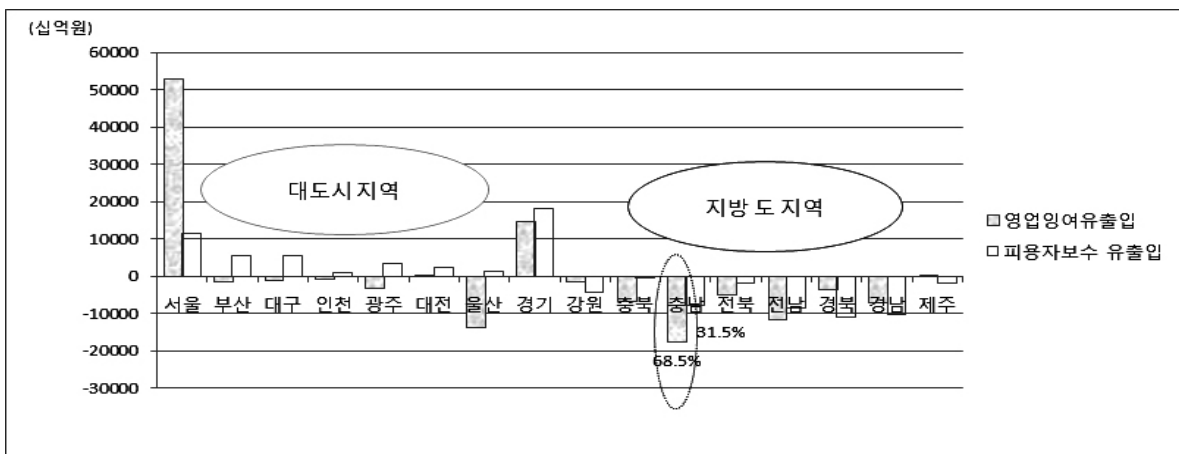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소득의 역외 유출비중(2012년 기준)



- 소득이 유출되는 경로는 분공장·지소·지사에서 본사로 영업잉여 형태와 타 지역 거주자가 충남에 와서 벌어드리는 피용자 보수 유출 등 두 가지가 있음.
 - 이 중에서도 충남은 영업잉여로 유출되는 비중이 전체 소득 유출 중에 68.5%나 차지 (2012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가지고 추산)
 - 이것은 충남의 기업(특히 제조업)이 대부분 본사를 외지에 둔 분공장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영업잉여 형태로 본사가 있는 외지로 유출되기 때문.
 - 참고로 지역별 소득 유출입을 보면, 서울은 영업잉여의 유입이 가장 크고, 지방대도시의 경우 인근 지역으로부터 피용자 보수의 유입이 큰 반면에, 지방 도 지역은 영업잉여의 유출이 큼(단 경북, 경남은 예외).

〈그림 4〉 지역별 영업잉여 및 피용자 보수의 유출입 방향과 규모(2012년)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2012) 및 지역소득통계(2012)에서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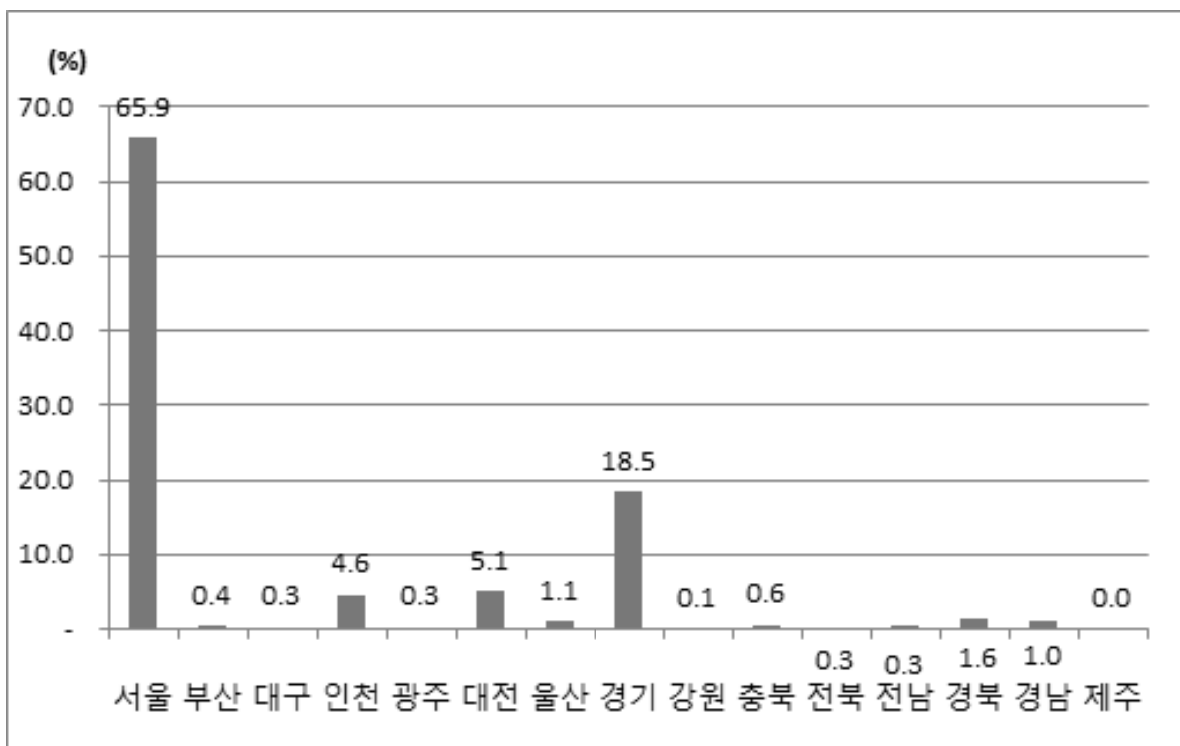
● 충남 지역의 영업잉여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출

- 충남의 경우 유출되는 영업잉여의 67%가 서울로 유출되며, 인천, 경기를 합친 전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비중은 89%나 됨. 충남에서 대전으로 영업잉여가 유출되는 규모는 불과 5.6%임(<그림 5> 참조).

● 영업잉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유는 본사의 수도권 집중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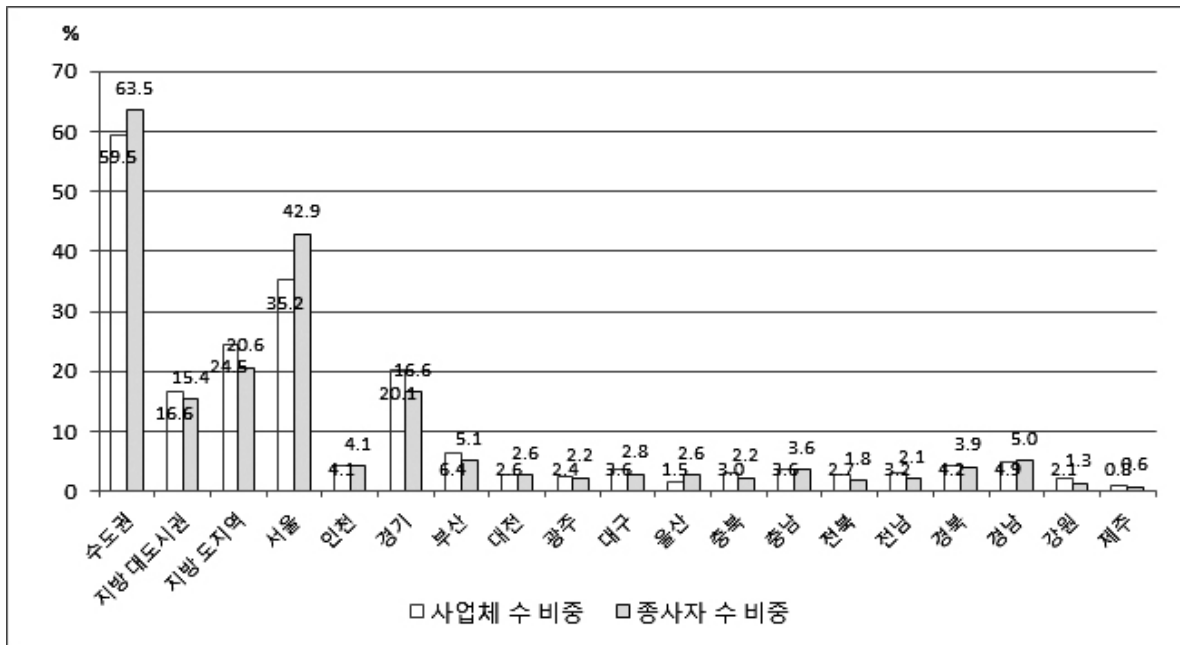
- 우리나라 본사의 약 63.5%(종사자 기준)의 수도권에 입지하며, 특히 서울에만 42.9%가 집중되어 있음(<그림 6> 참조).
- 충남에 국한시켜 보면, 충남에 공장·지사·지소를 둔 사업체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둔 사업체는 업체수 기준으로 36.8%, 종사자 수 기준으로 43.1%이며,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대부분 위치함.(<표 1> 참조)

〈그림 5〉 충남의 영업잉여 유출 지역과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2010) 및 총사업체 조사(2011) 원자료에서 작성

〈그림 6〉 본사의 지역별 분포(전국 대비 비중, %)



자료: 통계청, 총사업체 조사(2011)에서 작성

〈표 1〉 충남 소재 공장, 지사, 지소의 본사 소재지

(단위: 개수, %)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충남	1,611	18.3	23,712	8.4
수도권	3,222	36.7	120,952	43.1
서울	2,544	28.9	89,560	31.9
인천	100	1.1	6,276	2.2
경기	578	6.6	25,116	8.9
충청권				
대전	364	4.1	6,979	2.5
충북	85	1.0	855	0.3
호남권	97	1.1	1,216	0.4
영남권	176	2.0	5,774	2.1
기타	13	0.1	188	0.1
전체	8,790	100.0	280,628	100.0

자료: 통계청, 총사업체 조사(2011)에서 작성

2) 충남의 분공장 경제 실태

- 수도권에 본사집중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지방일수록 분공장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충남의 분공장 비율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음
 - 지역경제에서 분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방의 경우(광역시도 기준)는 25~33%가 공장·지사·지소 등의 형태로 되어 있음
 - 이 중에서 충남의 경우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24.2%의 법인이 분공장 또는 지사나 지점이며,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4.5%가 분공장 또는 지사나 지점임
 - 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충남의 분공장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음.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도내 제조업 법인의 15.1%가 분공장 형태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이것은 울산의 13.2% 보다도 높음
 - 충남에 있는 30대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대부분 공장들의 본사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닝(현재는 코닝정밀), 삼성토탈(종합화학), 현대 자동차 계열회사인 현대 파워텍, 현대 다이모스, 석유화학계열인 현대오일뱅크 등의 일부회사만 본사를 충남에 두고 있음

〈표 2〉 광역시도별 분공장 비율(%)

지역	전산업		제조업	
	사업체수	고용	사업체수	고용
서울	4.7	4.7	2.4	4.7
부산	24.8	25.5	3.8	14
대구	26.6	25.5	4.3	6.9
인천	23.1	24.8	5	10.2
광주	24.6	30.9	7.6	30.4
대전	30.3	30.6	7	21.8
울산	30.2	33.5	13.2	37.8
경기	20.4	27.7	6.1	21.6
강원	28.4	33.5	10.7	25.6
충북	22.9	30.3	13.7	33.4
충남	24.2	34.5	15.1	37.0
전북	21.9	30.9	10.8	36.4
전남	22.5	28.6	8.4	32.8
경북	23.4	33.1	10.1	37.0
경남	22.2	27.2	6.1	23.4
제주	22.6	26.7	4.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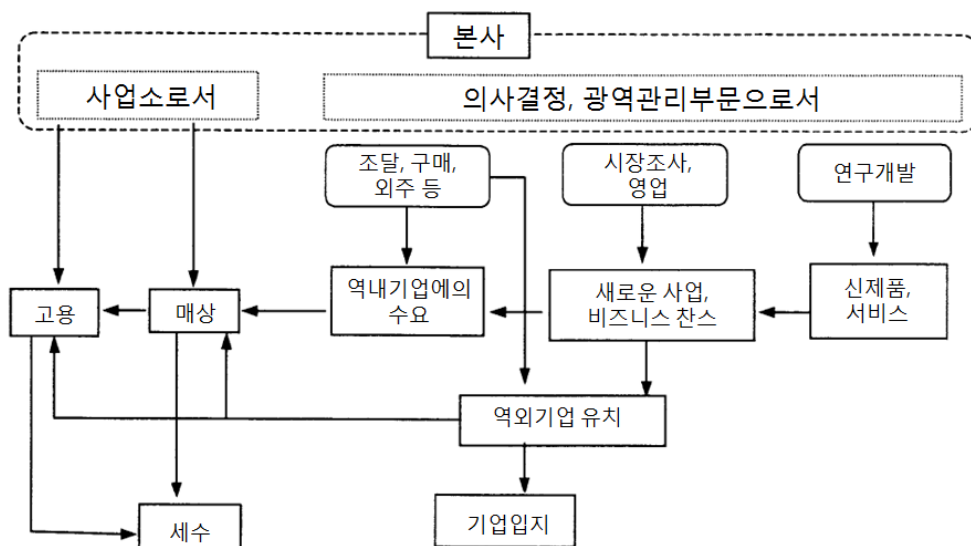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1 원자료

1) 본사 입지의 중요성

● 충남이 소득유출의 막고, 분공장 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자립적 본사기능을 확대하는 일

- 지역에 본사가 입지할 경우 분공장이 입지한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크며, 소득의 유출을 억제하고 종사자의 지역 내 정주를 확대할 가능성이 큼
- 아울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과 조달, 구매 등 역내산업 파급효과의 확대도 기대됨

〈그림 7〉 지역에서 본사기능의 의의



2) 본사 입지의 여건

- 본사 입지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남 소재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자동차 부품업체, 종업원 100인 이상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40곳을 대상으로 본사기능 이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

〈표 3〉 조사대상 업체의 개요

(단위: 개, 억원, 명)

업 종		업체수	평균매출액	평균종업원수	충남소재공장의 평균종업원수
자동차	본사 소재	7	5,825	950	
	공장	10	105,287	9,327	598
철강	본사 소재	—	—	—	—
	공장	1	12,814	10,738	5,352
반도체 · 디스플레이	본사 소재	15	22,334	3,221	
	공장	4	1,824	383	134
석유 및 화학	본사 소재	—	—	—	—
	공장	1	24,000	350	85
기타	본사 소재	2	633	140	—
	공장	—	—	—	—

- 충남 소재 공장은 대부분 생산기지 역할만 수행

— 본사가 외지에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본사와 공장 간의 기능 분담을 조사한 결과, 제품 기획, 영업, 재무, 국제업무 등 대부분의 고급관리 기능을 본사에서 담당하고 충남 소재 공장은 거의 생산기지 역할만 수행했음(〈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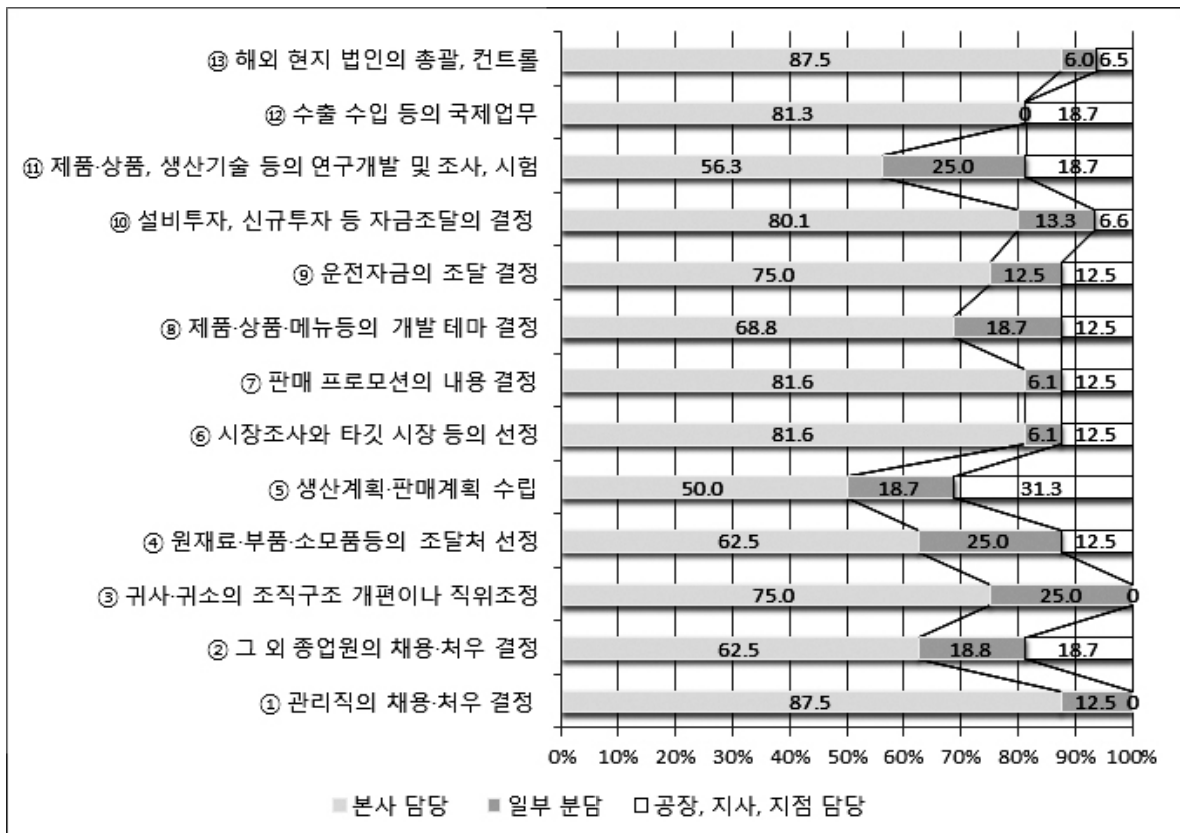
- 본사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의 용이성, 관련 산업의 집중과 생산거점의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 등이 중요했음

—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지원환경, 사업지원 비즈니스의 편리성, 주거, 문화, 교육 등 생활여건과 조세 부담 등 우대 조치도 그 다음으로 중요 요인임(〈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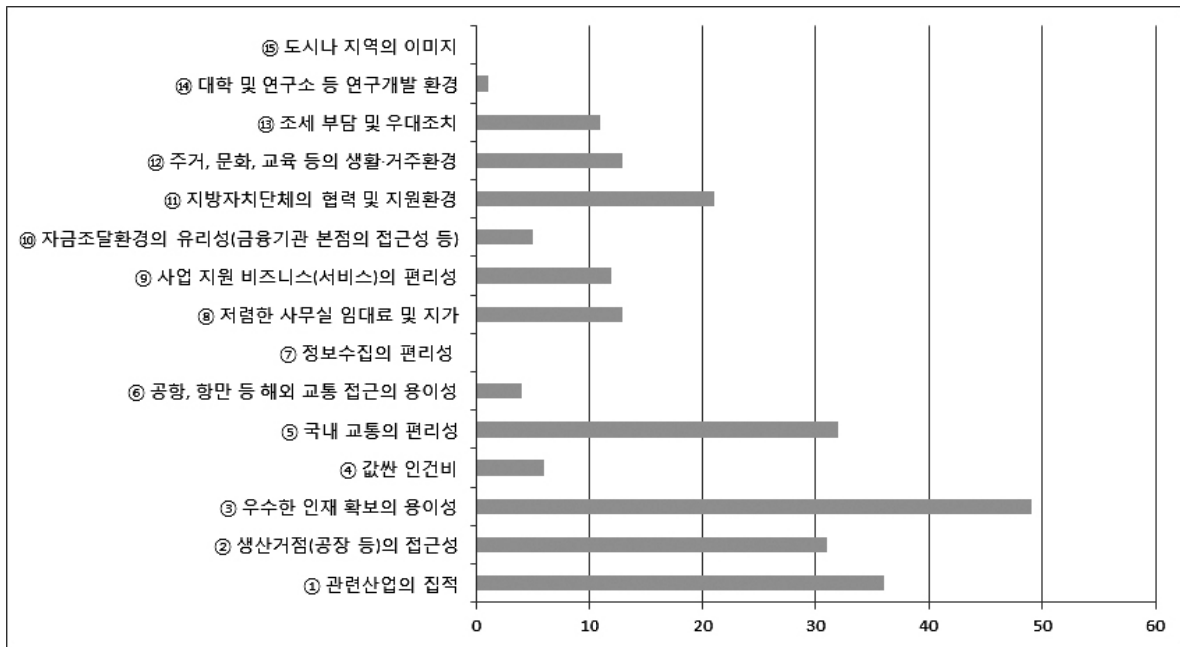
● 조사 대상 업체들이 답한 본사 입지에 있어서 충남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 유리한 점: 거래기업과의 근접성(현대 자동차, 삼성 전자 및 디스플레이 등), 생산현장과 밀착경영 및 빠른 의사결정 등이 1순위였고, 그 외에 편리한 교통, 공단조성을 통한 좋은 입지여건, 저렴한 임대료 및 지가 등임. 특이한 사항은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부처나 충청도청과의 근접성을 중시하는 업체도 있었음.
- 불리한 점 : 우수한 인재확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다음이 생활관련 인프라의 부족이나 여가시설 부족을 꼽았음. 그 외도 불편한 대중교통 환경, 타도시에 비교해 비싼 물가수준(천안 소재 업체)을 지적함. 의외로 해외접근의 불편을 호소한 업체는 거의 없었음.

〈그림 8〉 본사와 공장의 역할분담



〈그림 9〉 본사유치를 위해 중요한 점



● 산업별로 본 충남본사 입지 현황

- 철강의 경우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충남 공장은 말 그대로 관리기능이 거의 없는 생산공장의 역할만 수행함(H 제철).
- 대산 공단에 있는 석유화학공장 경우 S사는 울산에 본사가 있지만, H사는 공장이 있는 충남 서산에 본사를 같이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양사 모두 서울 사무소에서 재무, 판매, 생산 제품기획 등 본사 주요기능을 대부분 수행함.
- 조립가공형 산업(Product 산업)의 특성을 가지는 자동차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현대 모비스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구매에서 판매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며, 충남공장은 단순 생산공정만을 담당함.
-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100인 이상 종업원 규모의 약 40여개 업체를 뽑아 조사한 결과, 충남에 본사를 둔 업체는 9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본사를 경남, 경북, 울산지역에 두고 있음

〈표 4〉 종업원 100인 이상 대표적 자동차 부품업체의 본사 소재지

구분	충남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울산
개수	9	4	4	11	7	2


자료: 충남 TP 자동차 센터

- 한편 디스플레이 산업은 상기 업종과 다른 특성을 보임. 우선 관련 부품의 핵심 수요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 본사가 아산에 입지하고, 울산과 아산에 공장을 나누어 입지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와는 달리 대부분 아산에 주력공장을 두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업체들의 본사가 삼성디스플레이 인근인 천안이나 아산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음
- 유리기판을 공급하는 삼성코닝정밀(종업원 4,245명), 하나마이크론(종업원 1,217명)이나 그 외 (주)세메스, (주)스테코, (주)피케이엘, (주)티에스이 등 상당규모의 기업들이 본사를 충남에 두고 있음

-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
 -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생산기능의 이전이 아닌, 기획 및 R&D 등과 같은 기업 활동의 핵심기능을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제도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
 -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기업도시 등은 지원규모나 인센티브가 한정되어 있고, 주로 공장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사이전 대책으로는 불충분
 - 따라서 가칭 ‘법인 본사이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법인세 감면과 이전 자금 처리 용자 등 인센티브의 법제화, 본사 이전을 결정한 대기업이 적정 규모의 본사입지 용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용지 확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지방의 열악한 교육, 정주환경 등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함
 - 금융, 수출, 환경, 설비확충 등의 주요 기업활동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업무와 권한도 대 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의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권한의 수권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수도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지방의 생산자지원 서비스업종의 활성화와 함께 기업경영활동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유치 및 확대해야 함. 아울러 고급인재 정주 기반의 확충 및 정주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야 함

- 한편 충남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충남이 가진 독특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유치가 가능한 업종과 기업을 선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

- 충남은 수도권에 비하여 우수한 인재확보, 생활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점에서 불리하지만, 거래기업과의 근접성(현대 자동차, 삼성 전자 및 디스플레이 등), 편리한 교통, 저렴한 임대료 및 지가,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부처나 충남도청과의 근접성 등에서 유리한 점도 지니고 있음.
 - 한편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산업 특성별로 본사 입지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대책 수립도 필요(<표 5> 참조).
 - 자동차 부품회사의 경우 울산이나 경기도에 대부분 주력공장이 위치하여 타지에 있는 본사를 충남으로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그러나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 최근 공장을 확장하면서 충남에 주력공장을 두는 사례가 있어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본사 유치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미 충남에 본사가 있는 기업을 지원, 발전시켜 세계적 부품회사로 발전시킴으로써 타 업체가 외부집적 효과를 노려 충남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 전략의 하나임.
 - 한편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의 경우 이미 상당 기업의 본사가 충남에 위치하지만, 아직 경기 등에 일부 본사를 둔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사 유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본사나 본사기능을 충남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간정책도 수반되어야 함. 예를 들어 천안·아산 KTX 역사 인근에 국제 비즈니스 및 R&D 센터 특구를 지정하여 대기업 본사가 입지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오피스 거점과 생활환경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표 5〉 충남의 산업별로 본 본사 입지 가능성과 전략

산업	현황	유치 전략
철강	· 대부분 수도권에 본사 · 충남은 단순 생산공장	· 본사 기능의 분권화, 이양
석유화학	· S사는 울산 본사, H사는 충남 본사 · 실제 주요 의사결정은 서울 사무소 담당	· 본사 기능의 분권화, 이양 및 일부 업체 본사 유치
자동차	· 현대 자동차 본사는 서울 소재 · 일부 현대 계열회사(현대 다이모스, 현대 파워텍 등) 및 1차 협력업체 충남 본사소재 · 충남은 제2공장으로 대부분 1차 협력업체 본사는 수도권 내지 울산 소재	· 완성차 업체 본사 기능 분권화 및 이양 · 충남에 주력공장 둔 수도권 부품업체 중심으로 본사 유치 · 기존 충남에 본사를 둔 1차 부품업체의 육성과 세계화
디스플레이	·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 충남 소재 · 다수 관련 업체 본사 충남 소재	· 수도권에 본사를 둔 협력 기업 대상으로 본사유치 · 기존 충남에 본사를 둔 장비업체의 육성과 스펀업, 세계화

※ 이 글은 '충청 지역경제 선순환 활성화 방안(2013)'의 연구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충남발전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 고 자 료 ◆

- 박 경 (1998),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전략의 실상과 과제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 2호.
- 박 경 (2011) '우리나라 지역간 소득의 역외유출현상(충남을 중심으로)', 『계간 공간과 사회』, 한국 공간환경학회, 21(4).
- 신동호 외 (2012),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홍성효 외 (2011),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한국은행 (2007),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 (財)九州地域産業活性化センター (2010), 『九州本社R&D機能拡充方策調査報告書』.
- Jung Won Sonn a & Dongheon Lee (2012), 'Revisiting the branch plant syndrome: Review of literatur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advanced econom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16(3): 243-259.
- Watts, H. D.(1981), *The Branch Plant Economy: A Study of External Control*, London, Longman Publishing Group

2014년도 충남리포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호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